

# 전북은행 지역사랑 실천 '주목'

### 순이익 10% 이상 사회 환원 · 국내 2위의 서민 위한 금융 펼쳐

옛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행은 비가 오면 우산을 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아버린다고 하니 금리가 낮은 은행 돈이라도 절대 빌려 쓰지 말고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이 회자된다.

요즈음은 코로나 19 등 거리두기 여파 이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빚만 잔뜩 늘어나 한숨만 쉬고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전북은행에서는 서민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지역은행의 임무를 수행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포용적 금융을 시행하기 위해 애쓰고 있어 주목된다.

전북은행은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변함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23년 은행연합회에 제출한 전북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의하면



157억3,200만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서민들의 금융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새희망홀씨, 햇살론15, 햇살론 youth, 햇살론뱅크 등 정책 서민금융상

품들을 통해 중·저신용자와 외국인 등을 비롯한 최저 신용자들에게까지도 금융을 통한 사다리타기를 오를 기회를 주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200억원을 금리가 낮게 특례보증대출을 진행하는 등 신용이 낮은 대출자들이 대출 갈아타기 등을 통해 금융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어 도움을 받는 저신용자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온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서민 금융 취급실적이 2023년 연말 기준 8,273억원을 대출해주어 전체 금융권에서 신한은행을 제외하고 2위 달성했다.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지방은행으로서 정말 과당성 있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은행이 우리나라 금융 여건상 살아남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과 대전, 세종시 등 중부지역을 포함해 국내 85개 영업점과 해외지역 사무소 1개소 포함 86개 영업점에서 1,242명의 임직원이 힘을 모아 이룩한 성과라서 더 돋보인다.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과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북은행이 향후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임실군조합공동사업 단지유통센터에서 농산물 통합물류를 통한 비용 절감과 신속한 소비시장 배송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북 농산물 판매 확대를 이루고자 농협물류(대표이사 최선식)와 무주·임실군 통합물류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전북농협, 농가소득 증대 기여

### 통합물류를 통한 전북 농산물 판매확대 협약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임실군조합공동사업 단지유통센터에서 농산물 통합물류를 통한 비용 절감과 신속한 소비시장 배송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북 농산물 판매 확대를 이루고자 (주)농협물류(대표이사 최선식)와 무주·임실군 통합물류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본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날 협약식에는 무주농협(조합장 박동열), 구전동농협(조합장 김성근), 임실농협(조합장 최동선), 오수관농협(조합장 정철식), (주)농협물류 대표가 참석해 다시간 공동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농협물류에 따르면 금차 통합물류 협약을 통해 임실군내 2개 농협은 연간 3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무주군내 2개소는 물류시스템 체질개선을 통해 농산물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북농산물은 소비자가 인정하는 고품질 다수화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개별 운송으

로 높은 물류비 부담과 성출하기에는 차량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납품시기를 놓쳐 판매처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통합물류를 통해 급격한 물류비용 증가를 막고 안심하고 판매처에 적기 공급을 제공할 수 있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 수익향상이 될 것을 기대한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농협물류와 함께 지역 내 통합물류 확대하고 광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북농산물 판매확대와 농업인의 물류비 절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북농협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필두로 2023년 기준 원예농산물 취급액 5,869억원으로 전국 도 단위 2위를 차지하는 등 산지유통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농산물 산지물류도 공동물류체계 구축 확대하여 농업인 실익을 증대하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농촌진흥청, 학·산업체 연계해 농약 실무 능력 높인다

### 농약제제와 제형 이론·실습 교육... "업무 능력 키우는 계기될 것"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농약과학회와 함께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농약 실무 공동연수를 연다.

농약 관련 분야 대학(원)생과 농촌진흥기관 농약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한국농약과학회 누리집(kjps.or.kr)에 신청하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농약의 제제와 제형 관련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제제는 농약의 유효성분인 원제에 보조제를 섞어 농업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이다.

제형은원제를 제제해 나온 결과물인데, 농약의 살포방법에 따라 수화제,

액상수화제, 유제, 액제, 입제, 세립제, 분제, 혼연제, 연무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된다.

첫날에는 농약 제제 업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약 제형의 이해, 농약 원제 특성과 제형 설계, 농약 제형별 제제 방법과 물리 화학성 등 이론을 교육한다. 둘째 날에는 교육생들이 농약 제조 업체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농약을 제형으로 만드는 실습을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번 공동연수로

농약 관련 분야 대학(원)생과 업무 담당자들이 체계적인 농약 관련 연구와 업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농약 관련 분야 대학(원)생과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공동연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이희동 과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농약 실무 공동연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국민연금-강원도 협약 체결...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신청자 발굴 협력기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형)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10일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이경희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의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5세가 지났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어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오른쪽)와 이경희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의료장(왼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르신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방식 제도이다. 즉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두 기관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신청자를 빠짐없이 발굴해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므로서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수급자로 선정돼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2024년 2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 979만 9,829명 중 660만 3,041명(67.4%)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36만 9,549명 중 25만 7,279명(69.6%)이 받고 있다.

/김옥기기자

## 신협중앙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1신협 1아동' 결연

신협중앙회 전북본부(전북신협)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본부와 진행하는 '1신협 1아동 결연후원사업'과 관련해 전북 47개 조합이 5780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사업에는 전북지역 47개 신협이 참여한 가운데 도내 아동 48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총 5780만원의 성장·학습비가 지원된다.

현재까지 전북신협의 누적 후원금은 9480만원이다.

최태일 전북지역협의회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신협이 지원하겠다"며 "전북신협은 1신협 1아동 결연 협약을 통해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